

학생 안 몰리는 종교계열 대학들... 신입생 총원 '바닥권'

교육부, 충원을 평가 강화 발표
충원을 대학역량진단 중요지표
신입생·재학생 충원을 낮은 곳 겹쳐
국공립대 대부분 100% 웃돌아

올해 신입생 충원과 지난해 재학생 충원을 지표가 좋지 않은 대학은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나타났다.

'충원율'은 말 그대로 학생을 채우는 수의 비율이다. 최근 교육부가 2021년 진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들의 해당 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대학입학 가능 자원이 대학 정원 아래로 내려가는 역전

〈정원 내 신입생 하위권 대학들〉

대학	신입생 충원율
영산선학대	10%
경주대	20.4%
한려대	21.9%
대전신학대	28.3%
중앙승가대	29.5%
대전가톨릭대	30%
수원가톨릭대	36.7%
제주국제대	41.6%
한국국제대	42.6%
부산장신대	58%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향후 공시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변화의 폭을 맞이할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을 살펴보면 종교계열 대학이 다수 포함

〈정원 내 재학생 하위권 대학들〉

대학	재학생 충원율
영산선학대	21.5%
대전가톨릭대	26.9%
한려대	31.4%
중앙승가대	32.5%
수원가톨릭대	33.3%
경주대	40.2%
제주국제대	42.8%
광주가톨릭대	47.5%
대전신학대	47.9%
신경대	57.4%

자료=대학알리미 공시

돼 있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충원율이 낮은 순으로 ▲영산선학대(10.0%) ▲경주대(20.4%) ▲한려대(21.9%) ▲대전신학대(28.3%) ▲중앙승가대(29.5%) ▲대전가톨릭대(30.0%) ▲수원가톨릭대(36.7%) ▲제주국제대(41.6%) ▲한국국제대(42.6%) ▲부산

장신대(58%)등 이었다.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은 ▲영산선학대(21.5%) ▲대전가톨릭대(26.9%) ▲한려대(31.4%) ▲중앙승가대(32.5%) ▲수원가톨릭대(33.3%) ▲경주대(40.2%) ▲제주국제대(42.8%) ▲광주가톨릭대(47.5%) ▲대전신학대(47.9%) ▲신경대(57.4%)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의 최하위권과 대다수가 겹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권은 중앙승가대가 32.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수원가톨릭대(33.3%) ▲신경대(57.4%) ▲가톨릭대 제3캠퍼스(69.1%) ▲안양대 제2캠퍼스(71.2%) ▲인천가톨릭대(73.5%) 순이었다.

강원 및 제주권은 제주국제대가 42.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상지대(82.8%), 강원대 제2캠퍼스(87.0%), 가톨릭관동대(87.6%), 경동대(90.7%), 강릉원주대(94.8%) 순이었

다. 충청권은 대전가톨릭대가 26.9%로 가장 낮았다. 이어 대전신학대(47.9%), 유원대(83.9%), 금강대(88.1%), 청주대(90.8%), 중원대(91.7%) 순이었다.

호남권은 영산선학대가 21.5%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려대(31.4%), 광주가톨릭대(47.5%), 예원예술대(67.9%), 한일장신대(82.5%), 호남신학대(83.2%) 순이었다. 경상권은 경주대가 40.2%로 가장 낮았다. 이어 대구예술대(63.8%), 김천대(78.9%), 한국국제대(83.4%), 영남신학대(84%), 장신대(84.8%) 순이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대부분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100%를 웃도는 가운데 전남대 제2캠퍼스(86.5%), 강원대 제2캠퍼스(87%), 목포해양대(91.6%), 군산대(92.1%), 경남과학기술대(93.3%), 강릉원주대(94.8%) 등이 100%를 밑돌았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삼육대 간호학과는 3박 4일간 자매대학인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을 초청해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삼육대

삼육대 간호학과, 日자매대학 학술교류 이어간다

한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지식을 나누는 '학술 교류'는 갈등이 되어선 안 된다는 대학이 있어 눈길을 끈다. 삼육대 간호학과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자매대학인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 간호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을 초청해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양교 간호학과 학생회 주최로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두 차례 진행되는 이

행사는 2013년 시작돼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로 올해는 행사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양교 학과장을 중심으로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교류행사에는 야마나시현립대 간호학과 교수와 재학생, 야마나시현립 병원 간호사 등 12명이 참여했다.

/손현경 기자

세종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내달 2일부터 접수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지원센터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핵심 추진목표 중 하나인 청년창업육성을 위해 '세종대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회 참가 신청은 내달 2일~22일까지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그 이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 또는 지역 거주자 ▲ 예비창업자 및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내 소득발생 가능한 유학생비자 소지자로 1년 이상 체류기간이 남은 자이며, 예비창업자 및 광진구 거주자, 세종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은 우대한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2018학년도 후기 학위 907명 수여

경희사이버대학교는 24일 오전 11시부터 경희대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58명,

석사 49명이 학위를 받는다.

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경희사이버대 개교 이래 2만8538명이 학사학위를 464명이 석사학위를 받게 됐다. /한용수 기자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자 평균 학점 3.7

10명 중 4명 취업 희망직무 인턴 전공 분야 자격증 보유자 58%

올해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하는 취업준생들의 졸업 학점은 4.5 만점에 평균 3.78이었고, 10명 중 약 4명은 취업 희망 직무 인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잡코리아가 2019년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자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직무분야 자격증과 인턴 경험 처럼 직무 연관 스펙을 쌓은 지원자들이 많았다.

전공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58.3%로 가장 많았고, 대외활동 경험자 비율도 45.6%에 달했다. 지원

자의 38.1%는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력이 있었고, 이들의 인턴 근무 기간은 평균 5개월이었다.

인턴 근무 기업(복수응답)은 규모별로 중소기업(40.0%), 중견기업(29.2%), 대기업(23.8%) 순이었다.

대학 졸업 학점은 4.5 만점에 3.37이었고, 기간이 유호한 토의 점수는 전체의 50.6%가 보유했다. 이외에 영어말하기 점수를 보유한 취업준생은 28.1%, 해외 어학연수 경험자는 25.1%였다.

취준생들의 전형 방식별 선호도를 물었더니, '수시채용전형'(37.1%)이 '정기공채 전형'(31.4%)을 앞섰다.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1년 내 채용이 진행돼 지원 기

회가 늘어날 것 같아서'(54.3%), '공고가 몰리는 공채시즌과 다르게 한 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어서'(38.9%), '스펙 등 직무 별로 준비해야 할 항목이 명확해서'(26.5%) 순으로 꼽았다.

반대로 정기공채를 선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해당 시즌에만 자소서 작성하고 면접준비를 하면 되므로'(44.9%), '기존 공채 합격자 자료 등 참고할 자료가 많아서'(39.4%), '공채시즌에 맞춰 스펙을 준비하는 등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37.4%) 등의 순이었다.

한편, 하반기 공채 취업준생 10명 중 3명(29.8%)은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유예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한용수 기자 hys@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22일부터 시작

시험지구 교육청, 일선 고등학교 접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2일부터 9월6일까지 12일간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인 경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 후에도 접수기간 중이라면 시험 영역이나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능 D-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갯바위에서 수험생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돼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정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한남대 국내 최초 16명 학생에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

한남대는 20일 창업, 서비스러닝분야 등 16명의 이수 학생들에게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학점당 학위제인 '마이크로 디그리' 학위를 수여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한남대가 미국 스탠퍼드대, 핀란드 알토대 등 글로벌 명문대를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일종의 학점당 학위제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 이수하면 졸업대수여하는 학사학위와 별개로 취업 및 창업 시 개인역량 인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이수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지난 6월 교내 공모에서 150여명의 지원자가 몰려 6대1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 중 22명이 선발돼 7월 1일부터 한 학기 수업을 2주 과정으로 압축해 캠프형 수업으로 진행됐다. /손현경 기자